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종그림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마운드 이 표정 저 표정... '젓 먹던 힘까지'

사진=나명주 기자



광주일고 정찬헌



부경고 이광진



제물포고 김해용



충암고 홍삼삼



<대회 4일째>

무등기 인재들 MLB서 '눈독'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제 14회 무등기 대회에 참가중인 '고교 특급 에이스' 정찬헌 등 고교 유망주들에게 눈독을 틀고 있다.

12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국내 8개 프로야구 구단스카우트들에 따르면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정찬헌(광주일고·투수)과 최현욱(외야수), 최형록(내야수·이상 군산상고), 최원재, 박민석(이상 투수·장충고), 하준호(투수·경남고), 김재한(포수·인천고), 조성우(투수·야탑고), 진아람(투수·성남고·이상 3년) 등 9명에 대해 스카우트를 타진하기 위해 신분조회를 의뢰했다.

선수 신분조회는 국가 간 선수 이동이 이뤄질 때 영업 대상 선수가 있는 나라의 프로야구 구단에 해당 선수가 어떤 신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광주일고 정찬헌 등

대회 참가자 5명 포함

총 9명 신분조회 의뢰

의뢰할 경우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프로의 경우 어느 구단 소속 선수인지 자유계약 선수인지 아니면 임의탈퇴 선수인지 등을 상대국 프로야구 구단에 알려줘야 한다.

선수 간 이동이 야구보다 훨씬 자유로운 축구나 농구, 배구 등에는 없는 절차로 한국·미국, 한국·일본이 맺은 '선수계약협정'에 따른 스카우트 작업의 예비 단계이다.

KBO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두산과 2008년 신인 1차 지명 계약(계약금 2억원, 연봉 2천만원)을 맺은 진아람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보냈으며, 나머지 선수들은 신분조회 서류를 준비중이다.

이들 중 정찬헌과 최현욱, 최형록, 최원재, 박민석 등 5명은 이번 무등기 대회에 참가해 높은 기량을 뽐내고 있다.

특히 정찬헌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명 후보 1순위로 낙점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45km를 넘나드는 직구와 예리한 슬라이더가 일품인 정찬헌은 지난 11일 열린 무등기 대회 1차전 군산상고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7.1이닝 동안 4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 스카우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 대통령배 대회에서 최우수 선수로도 뽑힌 정찬헌은 당시 4경기에서 19.2이닝동안 20탈삼진을 속아내며 11피안타 5자책점으로 3승을 챙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찬헌 9K 완투... 광주일고 8강행

충암고 양성우 대회 1호 홈런... 팀 패배로 빛바래
제물포고, 부경과 접전 끝 8강진출... 유신도 합류

'고교야구 명문' 광주제일고가 '서울대표' 충암고를 꺾고 8강행 첫 차에 올라탔다. 충암고는 주장 양성우가 대회 첫 홈런을 터뜨렸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이 바랬다.

광주제일고는 14일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 14회 무등기전국고교야구대회(광주일보사·대한야구협회 공동) 충암고와의 대회 4일째 16강전에서 고교특급 마운드 정찬헌의 완투승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인천 제물포고는 부경고를 '제물'로 7-3으로 승리했고, 유신고는 인천고를 5-2로 누르고 8강에 합류했다.

광주일고	000 100 011 - 3
충암고	000 000 010 - 1

광주제일고는 4회 서전전의 우전안타와 도루로 만든 2사 2루서 조영선의 좌측 펜스를 맞히는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아냈다. 8회에는 선두타자 한희준의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와 다음타자 허경민의 좌이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1점을 보냈고, 9회에도 첫 타자 윤여운의 3루타와 조성진의 우전 적시타를 묶어 승부에 쐬기를 박는 1점을 얻어냈다.

7회까지 무득점에 그친 충암고는 8회 1사 후 주장

양성우의 대회 첫 홈런으로 완봉패의 수모만 겨우 면했다.

지난 11일 군산상고와의 대회 1차전에서 7.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 막은 광주일고 에이스 정찬헌은 이날도 선발로 나서 9이닝동안 6피안타(1홈런), 9탈삼진, 1실점으로 완투승을 기록하며 대회 2승째를 챙겼다.

부경고	100 100 001 - 3
제물포고	200 200 12x - 7

추격에 추격을 거듭한 대 혈전이였다.

부경고는 1회초 2사 후 김사현의 중전안타와 박태정의 좌중간을 꿰뚫는 2루타로 먼저 1점을 얻었다. 이에 제물포고는 1회말 1사 2루서 류기훈의 우중간 2루타로 1점을 뽑은 뒤 유익표의 역전타로 승부를 2-1로 바꿨다.

부경고는 돌아온 4회초 2사 2, 3루서 이상호의 우전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4회말 공격에 나선 제물포고는 2사 1루서 안정광의 3루타와 박용진의 2루타를 묶어 2점을 또 달아냈고, 7회에는 류기훈의 우측 깊숙이 떨어지는 3루타

오늘의 무등기 야구

16강전
청주기공-공주고(10시)
중앙고-효천고(12시30분-KBSN 중계)
제주관광산업고-상원고(15시)
서울고-정충고(17시30분)
(앞쪽이 선공·1루쪽 더그아웃·이상 무등경기장)

와 상대 투수 실책을 엮어 1점을 추가했다. 제물포고는 7회 1점, 8회 2점을 더 보태 승부를 마감했다.

인천고	000 011 000 - 2
유신고	010 013 01x - 5

수비 실책 2개가 승부를 갈랐다.

1-1로 팽팽하게 맞선 5회 유신고는 1사후 1번타자 이지훈이 상대 유격수의 송구 실책으로 2루까지 진투한 뒤 권남진의 중전안타때 상대 중견수의 홈 송구 실책 등이 겹치면서 2점을 얻었고, 계속된 2사 만루서 1점을 더 보냈다.

유신고는 8회에도 1사 후 김주의 우익수 옆을 흐르는 깊숙한 3루타에 이어 신정윤의 내야 땅볼로 1점을 추가,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히어로

대회 1호 홈런 충암고 양성우

"청소년대표가 목표"

"공이 맞는 순간 홈런이란 걸 알았죠." 충암고 주장 양성우(18·3년·175cm 78kg)가 대회 1호 홈런을 터뜨렸다.

양성우는 14일 16강전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대회 첫 홈런을 날렸다.

좌타자인 양성우는 0-2로 뒤진 8회말 1사 후 볼카운트 1-2에서 상대 선발 정찬헌의 4구째 높은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가볍게 넘기는 솔로포를 작렬했다. 비거리 110m.

양성우는 "앞선 타석에서 배트 타이밍이 좀 늦은 듯해 스피드를 올리고 직구를 노려쳤는데 홈런이 됐다"며 "대회 첫 홈런을 때려낸 것은 기쁘지만 팀이 패한 게 가슴 아프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공을 배트에 맞히는 것만큼은 자신있다는 양성우는 "무등기 대회 4강 진입이 목표였는데 실패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고, 프로구단에서 뛰고 싶은 게 최대 목표"라고 희망을 밝혔다. 광명 하안복초등학교 4학년때 처음으로 야구 배트를 잡은 양성우는 선린중학교를 거쳐 충암고에서 외야수로 활약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장효조 삼성 스카우트 주임

"성실한 선수 찾습니다"

"끝까지 열의를 가지고 뛰는 학생다운 학생, 인성을 갖춘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장효조 삼성라이온즈 스카우트 주임(52)이 무등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13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펼쳐진 대구 상원고(옛 대구상고)의 경기를 지켜보는 그의 눈빛은 다른 때보다 매섭게 빛났다. 장주임은 1973년 모교인 대구상고가 대통령배·봉황기·황금사자기 등 전국 야구 대회에서 3관왕을 휩쓸 당시 팀 우승의 주역이었다.

1983년 28세의 나이로 프로에 늦깎이 데뷔를 했던 그는 10년의 프로생활 동안 4번의 타격왕·1번의 최우수 선수상·5번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타격'하면 빠지지 않고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교타자였다. 3할3푼1리 라는 그의 역대 통산 타율은 92년 은퇴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가 몸담았던 삼성과 롯데는 옛 해태의 라이벌팀으로 그 당시 양측 팬들 사이에는 신경전 이 팽팽하게 벌어지곤 했었다고 회고했다.

"프로인 만큼 팬들 앞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해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후배들도 실력만큼이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 주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고교야구 부경고와 제물포고 경기. 7회말 1사 3루에서 제물포고 유익표의 투수앞 땅볼때 3루 주자 류기훈이 홈으로 달려들어 세이프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